

“광주 문화예술 특화 MICE산업 키우자” 한마음

문화전당·관광컨벤션뷰로 등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다양한 상품 개발·관광객 유치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축으로 관광·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주목된다. 각 지자체간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관광·회의의 산업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특화한 전시 컨벤션산업이 뿌리내릴 관심을 모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이지훈·관광컨벤션뷰로) 및 Gwangju & Partners(광주권MICE육성협의회·협의회)는 16일 2시 문화전당(극장3)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속가능한 광주시 관광·MICE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이 담겼



조성규 광주권MICE육성협의회 대표대리, 이지훈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가 16일 문화전당 극장3에서 광주시 관광·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화전당 제공)

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공식 개관한 문화전당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화전당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에 특화된 전시 컨벤션을 유

치하는 데 지역 관광컨벤션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문화전당은 관광컨벤션뷰로와 협의회에 국제회의·공연·전시 일정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숙박업체 홍보담당자를 대

? MICE 산업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첫머리를 딴 용어다. 관광·회의산업이라고도 한다.

상으로 문화전당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화전당의 몫이다.

관광컨벤션뷰로와 협의회는 문화전당 관련 정보를 국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문화전당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또 문화전당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전당은 국가적인 브랜드기관으로 광주시 관광 및 MICE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및 협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전당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양한 체험으로 과학자 꿈 키워요

보건환경연 ‘과학체험교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통해 과학자로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과학체험교실은 내년 1월5일부터 21일까지 보건·환경·동물분야로 나눠 모두 10회 진행된다. 1월5일 ‘GIST교실’을 시작으로, 6~8일 ‘신기한 미생물의 세계’ 3회, 12~14일 ‘동물은 내친구’ 3회, 19일~21일 ‘환경교실’ 3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중에는 어린이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의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보면 GIST교실은 우리 몸의 파수꾼 ‘면역세포’란 무엇일까?라는 주제 아래 우리 몸속의 백혈구가 마치 순찰차처럼 밤거리를 누비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원리와 체험을 GIST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가 강의한다.

신기한 미생물의 세계(보건교실)는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조립해보고, 병원성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야기하는지, 더불어 자기 손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험한다.

환경교실은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우는 수서곤충 관찰하기,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맑은 물 만들기, 소리의 전달과정 및 자신의 목소리 측정하기 등 생활 속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 동물은 내친구(동물교실)는 동물의 신체를 육안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구조적 특징을 배우고, 유기동물 보호 자원봉사 체험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과학체험교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인원은 1회당 20~25명씩, 모두 235명이다. 신청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vi.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시청서 인권영화 상영

‘차별, 별별 시선으로 다시보기’

광주시는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기념해 ‘차별, 별별 시선으로 다시보기’를 주제로 인권영화를 1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상영한다. 이번 행사는 영화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상영작은 인권(차별)을 주제로 국가인원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시선’ 시리즈 4편이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참여해 특별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작됐다.

상영 영화는 ▲실업고 3학년 여고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외도지상주의를 다룬 ‘그녀의 무게’(임순례 감독) ▲남자의 잘못된 차별의식을 다룬 이야기 ‘남자니까 아시잖아요?’(류승완 감독)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내팔인 연수생이 행려자로 오인돼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실화를 다룬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박찬욱 감독)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보호의 가치가 없는 인권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그 남자의 사정’(정재는 감독) 등이다.

각 영화 상영 후 인권교육 강사와 함께 영화와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르신 무료 급식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 행복봉사단은 최근 남구 방림동 ‘성요셉의 집’을 방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재래시장상품권 및 과일 등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우치공원, 주차요금 자동 징수...진출입로 4차선 확장도

우치공원이 그동안 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요금을 직접 거두면서 발생한 이중수금 등 오류를 없애기 위해 주차요금 징수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치공원이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자와 시민 간에 발생했던 잦은 요금 시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출입로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고, 주차장 내 차선을 도색

하고 화단 모서리와 사선 주차구역도 주차하기 편리하게 정비됐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주차요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우치공원 환경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치공원 주차장은 패밀리랜드 야간 방문객 주차와 자동차극장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했다.

특히 1990년 우치공원이 개장한 이후

25년만에 설치된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추가요금 징수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

우치공원 관계자는 “우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요금 시비 없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승강기 구조 훈련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최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에서 정전, 기기오작동 등으로 인한 승강기 갑작 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도시공사 제공)

나트륨 줄인 식품 확인하세요

광주시, 퀴즈풀이 등 캠페인

광주시가 시민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일주일여 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펼친다.

‘나트륨 줄이기Go! 건강 올리Go!’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나트륨 줄인 식품 표시제(사진)’ 캠페인에서는 전맛 미각테스트, 나트륨 과잉섭취 자가진단, 나트륨 관련 OX퀴즈풀이·롤렛게임 등 체험형 홍보를 통해 나트륨 과잉 섭취의 위험성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나트륨 일일 평균 섭취량은 4027m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 2000mg(소금 5g)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뇌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신장질환, 암, 비만 등 다양한 질병의 유발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